

자기소개서

소속	○○○	직위	○○	성명	○○○
----	-----	----	----	----	-----

1. 교사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길러준 성장 과정

저는 진주시 금곡면 흥정마을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나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고향에서 다녔고, 고등학교부터 진주에서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중학생까지는 반장·부반장을 도맡아 했고, 예체능도 공부도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인생의 첫 번째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고입 연합고사가 있던 시절이라 우수한 학생들이 진주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 모여 경쟁하다 보니 시골 출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했습니다. 그러나 촌놈의 끈기와 노력으로 졸업할 때는 in 서울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결국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저는 지방의 국립 사범대학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대학 시절은 저의 인생에서 최고의 화양연화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4년 동안 계속 장학금을 받았고 과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단순히 학점을 잘 받기 위한 전공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철학, 인문·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독서를 경험**하였습니다.

과수석 졸업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저는 바로 여기 곤양고등학교에 초임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곤양고등학교에 대한 애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젊은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골제'라는 학교 축제**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자들과 **향토조사반(지금의 역사동아리)**을 조직하여 곤양향교, 매향비, 다술사 등 유적지를 답사하며 직접 탁본도 하고, 학생들과 평소 하던 연극 수업을 갈고뎐아 축제 무대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의 지도 경험을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모범사례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누구보다 곤양고 아이들을 잘 이해했고, **누구보다 깊은 애정과 뜨거운 열정을 쏟아** 곤양고 제자들과 지금까지 소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사가 된 저의 성장 과정과 곤양고에서의 **초임 시절 경험**은 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기르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교육전문가로 거듭나다

저는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통해서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야말로 기본이며, 교사는 **자신의 분야(전공과 수업)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먼저 자기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고 학생들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임 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자생 연구 단체인 **경남역사교사모임**을 이끌어왔고, 한때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역사교사와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한일역사교육교류회**를 199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7년째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차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교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험·실습○○학교에 8년간 근무하면서 **교육실습 전문가**로 활동하여 훌륭한 교사양성과정에도 많은 기여와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역사교육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정 자격연수나 직무연수를 비롯한 각종 연수,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다년간 강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과 평가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평가 역량을 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최근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출제 팀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수업지도안이나 수업자료를 개발해 왔고, 자생연구단체나 국제교류에도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학습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보드 작업(중학교 세계사)에 참여하였고, **핵심용어콘텐츠(중학교 국사)를 직접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교과부 역사교육 강화 방안으로 추진된 '한국 근·현대사 심화학습 방안 및 자료' **개발에 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남 최초의 지역사 교재인 '함께 배우는 진주성전투 이야기' **집필팀장**, 3.1운동100주년 기념 경남학생독립운동이야기 '항쟁' **집필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3. 교감 없는 학교 교무부장 5년의 노하우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무엇보다 저는 ○○고, ○○고 등 교감 없는 학교에서 **5년간 교감 대행 교무부장**을 맡으면서 관리자 역할을 연습해 왔습니다. 관리자 역할이란 감시와 통제가 아닙니다. 배려, 소통, 화합이 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곤양고와 규모와 환경이 비슷한 두 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변화시킨 작은 성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촉진자로서의 역할

교장으로서 학교경영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와 업무분장, 교육과정이나 학사운영에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감시와 단속이 아닌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시작을 돕는 아침맞이 활동, 학생회·학생회 선거·간부 학생 리더십 캠프·체육대회·학교축제·졸업식 등 모든 학교행사를 학생들이 스스로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직원 간의 화합,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등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의 설계자로서의 역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학생 희망 중심 동아리 개설,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각종 교내대회 개설, 체계적인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한 창의적체험활동 기록장 제작 활용, 회복적 생활교육 및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위한 교사 연수, 진로캠프 및 자기소개서 쓰기 특강, 새로운 형식의 학교설명회, 학생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교육과정 설계자로서의 역할도 경험했습니다.

교육환경·활동 지원자로서의 리더십

교사와 학생의 교육 활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지원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화장실 비데 설치, 교무실 칠판 교체, 샤워실 리모델링, 교장실·중앙현관 현관판 리모델링, 커피메이커 구입, 교사 휴게실 싱크대 교체, 전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 주차장 포장 확장 등을 건의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구안하고 예산까지 확보한 사례는 진로진학 상담실 구축,

전교실 친환경 유리칠관·컴퓨터·대형 프로젝션 TV 교체 설치, 전교생 체육복 구입 등이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근무하는 동안 **진학성적까지 좋아지고**, 이런 변화들이 지역사회에 입소문이 나면서 **면단위 학교에서 보기 드물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의 고민과 노력, 창의성으로 학교가 조금씩 변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행복학교란 도교육청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4.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리더십을 기르다

흔히 학생-교사-학부모(지역민)를 교육의 3주체, 교육공동체라고 합니다.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교장실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고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교무회의·워크숍·협의회 등을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여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학생과 교사가 교육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경험들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역사기행,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의 많은 시민들과 만나왔습니다. 때마침 올해는 사천지역 교사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장은 학교 안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학교 밖의 인적·물적자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농촌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의 교육만 담당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 교육생태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술·체육·문화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저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자체, 향토 기업, 동창회, 학부모** 등 학교밖 자원들을 곤양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많이 끌어오겠습니다. 학부모와 지역민을 학교교육과정 안으로 적극 끌어들이겠습니다.

5. 지원동기: 작은 학교의 행복학교 만들기

누구에게나 인생의 첫 경험은 소중한입니다. 제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참교육을 31년째 실천할 수 있었던 것도 곤양고에서 초임 시절의 마인드와 경험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제 31년의 성찰과 경험을 곤양고에서 그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곤양고 공모 교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은 학교의 성공 가능성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도시의 큰 학교 교장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작은 학교가 오히려 도시의 큰 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둘째, 곤양고등학교만의 교육과정, 단 하나밖에 없는 학교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도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계획서를 보면 차별성이 없습니다. 곤양이라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전통가치와 미래가치를 잘 조화시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곤양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학교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장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의 3주체, 즉 교사-학생-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행복학교입니다.